

The Baring Foundation

80개의 창의적 나이듦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80 CREATIVE AGEING PROJECTS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



배링재단 소개

배링재단(Baring Foundation)은 인권 향상과 포용 장려를 목표로 설립한 독립 재단입니다. 본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은 아프리카의 국제적 개발, 영국의 사회적 정의, 영국의 예술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 예술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들의 창의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배링재단 역대지원사업 50선 (A History of the Baring Foundation in 50 Grants) 보고서를 참조해주시오.

글쓴이 소개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는 2003년부터 배링재단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으며 재단의 예술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이 자료의 편집은 배링재단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 담당 해리엇 로(Harriet Lowe)가 맡았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공해주신 앤서니 첸(Anthony Chan), 도미니 캠퐸(Dominic Campbell), 이사벨 루시나(Isabel Lucena), 타라 바인(Tara Byne) 박사를 비롯한 영국문화원 동아시아 본부 엘리 길 존스(ELLELL Gill Jones)와 케이틀린 베르스트라테(Katelijan Verstraete)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료에 사진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표지그림 소개

표지그림은 사진작가 미할 이바노프스키(Michal Iwanowski)의 작품입니다. 미할 이바노프스키는 웨일스 예술위원회(Arts Council Wales)과 배링재단이 후원하고 웨일스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자선단체인 에이지 컴리(Age Cymru)가 지역 노인들의 예술 향유를 위해 운영하는 양로시설 프로그램인 카트레부(cARTrefu)에 거주하는 예술가입니다.

80 개의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80 creative ageing projects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

“ 필리어스 포그는 ‘배링 형제은행’의
추천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포그는 그 은행의 무한한 신용을 얻고 있었다.”

질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1873),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를 소개하는 부분



Ruth's Table, USA.

목차

서문: 케이트 아서스(Kate Arthurs)	4
들어가며: 새로운 창의적 나이	7
유럽	11
아일랜드	12
네덜란드	15
독일	20
벨기에	24
스웨덴	25
핀란드	26
덴마크	29
포르투갈	30
오스트리아	31
폴란드	32
영어사용권 국가	33
미국	34
캐나다	40
호주	41
뉴질랜드	44
남아프리카공화국	46
아시아	47
일본	48
대만	53
한국	56
싱가포르	58
홍콩	59
맺음말	61
제언	64
주제별 견학 프로그램	65
추천자료	68

서문

케이트 아서스 영국문화원 예술부문 디렉터

나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잔주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준 미용산업 때문도 아니고, 새로운 항산화제품 개발이 일반화된 식품산업 때문도 아닙니다. 영국의 인구 고령화, 즉 중간값 나이의 증가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기인하며 인류 역사상 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해외 현황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 고령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정부, 가정, 그리고 공동체 등 영국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책임이며, 공동체 및 친구와 가족의 포용을 필요로 하며, 노동력과 삶의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따라서 잘 나이 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공통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이 문화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평등,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가치 위에 영국과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적용합니다. 차이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인 차별과 장애인 차별이 만연한 가운데 차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분열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험상 예술은 전혀 만날 일이 없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의 장 안에서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과 연결하고, 학습하며, 짝을 맺어 활동하는 것 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선진국가들은 고령화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만은 1993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퍼센트를 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의 혁신적 모델과 진보적 관점은 동아시아의 사례를 참조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해하고 촉발하기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접근하는 배령재단은 저희에게 귀감이 되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배령재단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배령재단의 도움으로 대만에서는 포용, 창의적 나이 들기, 국제 사절단 파견,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영국, 일본 예술가, 예술단체 간의 교류를 진행했으며, 한국에서는 창의적 나이들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예술, 민간, 보건 부문이 연합하여 이제 싹트기 시작한 이 분야에 대한 견해와 전문성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영국문화원이 이 분야에 기여했다는 것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전역에서 경험의 깊이와 특수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영국문화원은 최근 예술과 고령화를 연구하기

위한 해외연수(Arts and Ageing UK Study Tour)의 일환으로 창의적 나이 들기 운동의 성장을 이끄는 일본 지도자들과 웨일스 예술기관 대표들 간의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깊이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돕기 위해 무엇보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드는 것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실증기반을 가진 사례를 적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육체 및 정신 건강 도모에 효과가 있음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배링재단의 이번 보고서에는 영국문화원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링재단의 이번 보고서에는 영국문화원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흥미로운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영국문화원은 배링재단의 전문성과 접근법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나이들은 모든 사람의 미래에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성취하고 만족하는 데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는 나이를 인생의 탐험, 표현, 교류의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인인 린 박사, 친산 황 박사, The Gerontologist, 제56권, 제2호. '대만의 고령화: 활기찬 고령화와 고령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 만들기(Aging in Taiwan: Building a Society for Active Aging and Aging in Place)'. 2016

2 완 허, 대니얼 굿카인드, 폴 코왈;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 '고령화 세계: 2015, 국제 인구 보고서 (An Aging World: 2015, International Population Reports)' 2016



저항의 외침(Rebel Yell), 2017년 Bealtaine Festival (비얼테인 페스티벌). 사진: 이몬 오매호니(Eamonn O'Mahony). 비얼테인 페스티벌 제공.



소개: 새로운 창의적 시대

배경

이 보고서는 배링재단이 시행한 예술과 노인 프로그램(Arts and Older People)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한데 모은 것입니다.

배링재단 예술 프로그램은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영국의 노인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대상 노인의 연령을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기금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70세 이상의 노인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지원대상은 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 또는 치매환자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개발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참여예술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예술가들과 교류 하고 신뢰와 연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은 대부분의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시행하는 예술 프로그램인데 왜 굳이 다른 나라의 상황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첫째, 이 사업은 미국 뉴욕시 맨해튼(Manhattan)에 위치한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시각예술 프로젝트인 “MoMA에서 만나요 (Meet Me at MoMA)” 및 마크 모리스 댄스 컴퍼니(Mark Morris Dance Company)가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Brooklyn) 지역에서 운영하는 댄스 위드 파킨슨스(Dance with Parkinson's) 사례를 참조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해외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번에는 영국에서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외로 전파하고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 세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창의적 나이들은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빠른 핀란드, 일본, 한국 등을 비롯해 많은 국가의 공동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사례

노년의 삶에서의 예술

배링재단은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신념의 표현으로써 예술과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나이, 신체, 인지능력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배링재단은 노인 예술참여의 큰 효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국정신건강재단(Mental Health Foundation)이 배링재단의 의뢰 하에 작성한 보고서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¹

¹ 참여예술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실증 검토(An Evidence Review of the Impact of Participatory Arts on Older People, 영국정신건강재단(Mental Health Foundation), 2011

정신건강에 대하여: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신체건강을 동반할 때:

‘특정한 예술 형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뚜렷한 신체 건강 향상을 가져온다.’

공동체 측면에서:

*‘참여 예술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 친구 관계,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대규모, 유명 축제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배링재단은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증거 자료들도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소도시 콜체스터(Colchester)나 멕시코 칸쿤(Cancun), 미국 콜로라도(Colorado)주, 인도 첸나이(Chennai) 등지에서 본 모든 것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기념비적인 연구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평균연령 80세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제론톨로지스트(The Gerontologist) (제46권, 6번, 726-734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실험군은 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었고, 대조군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예술 프로그램 참여가 건강 증진, 의사 방문횟수 감소, 처방약 복용 감소, 신체 활동 및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당시 기준으로 약 63억 달러의 미국 공공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배링재단의 국제교류

배링재단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세 개의 주요 협력관계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윈스턴 처칠 메모리얼 트러스트(Winston Churchill Memorial Trust, 이하 WCMT)가 있습니다. WCMT는 2010년에 처음으로 예술과 노인을 주제로 한 5개년 해외연구 프로그램 지원을 결정하고,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선정된 연구원들은 6주간 해외로 나가 자료수집을 했고, 47명의 연구원에게 약 30만 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배링재단은 그 연구 결과를 홍보하고, 영국에서 진행하는 후속 개발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WCMT홈페이지에 있으며 및 일부 주제를 종합하여 발간한 앨리스 트웨이트(Alice Thwaite)의 창의적 나이들 운동의 발전: 영국에 주는 국제적 교훈 (Growing the Creative Ageing Movement: International lessons for the UK (2017))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협력관계는 네덜란드 여러 재단의 제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4개국 협력관계로 발전하여 독일에서는 노인 문화교육을 지원하는 쿠비아(Kubia),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Flemish Culture Ministry), 네덜란드 예술위원회(Dutch Arts Council)을 비롯한 네덜란드의 여러 재단, 그리고 영국 배링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 프로젝트는 2014년 런던에서 개최한 롱 리브 아트(Long Live Arts Conference)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그 후 여러 차례의 교류프로그램을 거쳐 2016년에는 네덜란드 상왕비를 초청하여 선보인 창의적 나이들 공연 등을 포함해 대규모로 개최한 더 헤이그(The Hague) 컨퍼런스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롱 리브 아트 선언문 - 예술을 느껴라 (Long Live Arts Manifesto - Feel the Arts)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편 보고서 네덜란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 창의적 나이들 네덜란드편(Dutch Old Masters and Mistresses - Creative Ageing in the Netherlands (2017))은 필자가 다시 네덜란드를 찾았을 때, 큰 감명을 받아서 자료 수집을 추가로 한 후 발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리엇 로도 독일 쿠비아의 초청을 받아 창의적 나이들 독일편: 라인-베스트팔렌 북부지역 사례(Creative Ageing in Germany: A view from North Rhine-Westphalia, 2017)를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과 2018년에 네덜란드 참여 예술위원회(Dutch Arts Council for Participation)와 공동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의 노인 친화적 도시 간 교류에 재정지원을 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재단은 2015년 캘로스트 굴벤키언 재단(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영국지부의 지원과 영국문화원의 협력하에 영-일 교류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보았던 고령화에 대한 일본의 접근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출장보고서로 살아있는国宝: 창의적 나이들 일본편(Living National Treasure: Creative Ageing in Japan)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국문화원과 함께 두 차례의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등을 방문했습니다. 적은 예산이었지만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속적이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시도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고, 엔텔레키 아트(Entelechy Arts), 맨체스터 카메라타(Manchester Camerata), 덜위치 미술관(Dulwich Picture Gallery),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등 영국 예술 단체와 국제 협력관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보고서의 범위

이 보고서에 담은 국가별 프로젝트의 규모와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이 보고서에 소개한 내용만으로 각 사례의 시행에 소요된 작업량을 가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각국에서 시행한 일련의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을 다소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필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곱 개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 창의적 나이들의 7대 불가사의!(The Seven Wonders of the Creative Ageing World!)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례는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본 재단에서 발간한 많은 보고서가 언급되어 있고, 또 그중 일부는 이 보고서 끝부분 참고자료에 언급했습니다.

제약사항

이 보고서는 체계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재단이 지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 바탕 위에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수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약은 필자가 비영어권 국가 언어에 미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행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영어 번역을 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자의 바람과 달리 영어권의 영향력이 훨씬 큰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특히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의 사례가 빠졌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필자가 해당 지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비록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지만, 유용한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유럽



Abair/Santaa(어베어/사마), 2019년 비얼테인 페스티벌 다문화합창 공연. 사진은 킬록 멘즈 셰드 콰이어(Kilcock Men's Shed Choir)와 패러 엘(Farah Elle)의 모습. 사진: 제다 드 브리(Jeda de Brí). 비얼테인 페스티벌 제공

아일랜드

내가 필리어스 포그라면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를 위한 세계일주는 반드시 더블린에서 시작할 것이다.

2009년 당시 비얼테인 페스티벌(Bealtaine Festival) 총감독이었던 도미니크 캠벨(Dominic Campbell)의 초청으로 아일랜드에서 매년 한 달 동안 열리는 창의적 나이들 축제를 본 후 큰 감명을 받은 필자는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에 자매축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루미네이트 페스티벌(Luminate) 개최에 협력했습니다.

01 Uillinn _ 일린

일린 웨스트코크 아트센터(Uillinn: West Cork Arts Centre)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밴트리 병원 세인트 조셉 요양 병동(St Joseph's Ward, Bantry hospital)에 입원중인 환자들과 함께 웰필드 이야기(Stories from the Well-field)라는 참여형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어린시절 친구에 대해 쓴 시는 마을축제에서 인형극과 창작곡을 사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습니다.

02 Waterford Healing Arts _ 워터포드 힐링 아트

워터포드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Waterford)의 워터포드 힐링 아트(Waterford Healing Arts)는 1993년 설립되었으며, 환자가 있는 병실에 가서 예술을 보여주는 등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특징인 예술 및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선단체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예술형태를 소개하며, 특히 음악과 시각 예술에 강점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03 St James's Hospital _ 세인트제임스병원

성공적 나이들을 위한 머서스 인스티튜트(Mercer's Institute for Successful Ageing)는 더블린(Dublin)시 세인트제임스병원(St. James's Hospital)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시행하는 네 개의 프로그램 중 창의적 삶(Creative Life) 프로그램은 2017년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환자 및 그 가족, 친구와 직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극, 음악, 시, 조각, 시각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다루고 있으며, 합창단 활동이나 메이킹 헤이 레미니스스 시어터(Making Hay Reminiscence Theatre) 및 아일랜드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Ireland)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04 Age and Opportunity and the Bealtaine Festival

에이지 앤드 오퍼튜니티와 비얼테인 페스티벌

비얼테인(Bealtaine)은 아일랜드 국립 노인 협회인 **에이지 앤드 오퍼튜니티 (Age and Opportunity)**가 1995년에 만들어 주최한 페스티벌로서 아일랜드 외에도 웨일스, 핀란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자매축제가 탄생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얼테인은 아일랜드 언어인 게일어로 봄을 뜻하며 페스티벌은 5월 한달 동안 계속해서 아일랜드 전역에서 열립니다. 페스티벌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페스티벌의 기치 아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참여하는 1,000개 이상의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페스티벌에는 매년 최소 500여 개의 이벤트가 열리며 5월 한 달 참가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2019년 페스티벌 주요 이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던코러스 (Dawn Chorus):** 배로(Barrow)강가에서 공연, 더스크 코러스: 아스피로 콰이어(Dusk Chorus: Aspiro Choir) 주도로 템플바(Temple Bar)에서 공연
- **블로 더 더스트 오케스트라 (Blow the Dust Orchestra) 10주년 기념공연:** 블로 더 더스트 오케스트라는 노인 음악가들이 아일랜드 국립 콘서트홀(National Concert Hall)에서 정기 연주를 위해 구성한 오케스트라
- **댄싱 스루 더 도어 (Dancing through the Door):** 코이세임 브로드리치 댄스컴퍼니 (CoisCéim Broadreach dance company)와 비얼테인 페스티벌의 주제 중 ‘현대’를 표현하는 참여형 공연을 한 무용단
- **어베어/사마 (Abair/Samaa):** 신규 다문화 다세대 합창 공연으로 킬록 멘즈 셰드 콰이어(Kilcock Men's Shed Choir)및 리비아 가수 패리 엘(Farah Elle)과 합동 공연
- **에이징 프로보카터 (Ageing Provocateur):** 다양한 예술가들이 쓴 짧은 각성의 글을 통해 고령화와 창의성에 대한 토론 형성을 위해 시작한 소셜미디어(SNS) 사업
- **리미널 스테이트 (Liminal States):** 페스티벌 주제 중 ‘현대’를 표현하는 공연으로 보름달 아래 워터포드 등대(Waterford lighthouse)와 워터포트시 한 교회에서 각각 열린 두 개의 저녁 라이브 공연
- **스트렝스 인 넘버스 (Strength in Numbers):** 독특한 스타일의 자전거팀과 더블린 출신 노인들이 주도하는 자전거 팀
- **비얼테인 @ 템플바 (Bealtain @ Temple Bar):** 템플바 주변에서 열리는 합동 가족이벤트. 작곡가 닉 로스(Nick Roth)의 거리 오페라가 공연의 하이라이트

아일랜드 사회 노인학 센터(Irish Centre for Social Gerontology)에서 2019년에 발간한 비얼테인 페스티벌에 관한 보고서는 ‘지역적 수준에서 시행하는 예술사업으로서 비얼테인 페스티벌은 깊이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Dancing through the Door (댄싱 스루 더 도어) - 코이세임 브로드리치 댄스컴퍼니(CoisCéim BROADREACH)의 비엘테인 페스티벌 준비 현장, 2019/2020. 사진: 롭 오코너(Rob O'Connor). 비엘테인 페스티벌 제공.

비엘테인 페스티벌 외에도 아일랜드 국립 노인협회(Age and Opportunity)가 개발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에 다른 사람과 동행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동반자(Cultural Companions)' 네트워크 사업
- 아일랜드 양로시설 상주예술가 배치 사업
- 노인 예술가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 치매환자들에게 시각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s Society)와 여러 갤러리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인 아주어(Azure)
- 양로시설 문화예술활동 지도사 공인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비엘테인 페스티벌 성공의 이면에는 호황기에 탄생했지만 그 후로 아일랜드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재정 긴축 상황 하에서 힘겹게 살아남기 위해 분투해야 했던 인고의 시절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비엘테인 페스티벌이 아일랜드에서 다양하고 성숙하며 자신감 있는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령재단의 예술과 노인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Ireland)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노인복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학술연구가 2004년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1인당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지출은 (공공재정 긴축으로 인해 다소 축소되었음에도) 그 규모가 영국보다 큼니다. 또한 드호게베이크 (De Hogeweyk)라고 하는 치매를 가진 전문직 은퇴자 마을과 같은 일련의 혁신적인 사회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빌딩 모두 각각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컬투힐 (cultureel)’은 연극과 영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05 Age-Friendly Culture Cities _ 노인 친화적 문화 도시

네덜란드가 참여 예술에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참여기금(Fonds voor Cultuurparticipatie, 이하 FCP) 전문가로서 예술진흥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링재단은 롱 리브 아트 컬버레이션 (Long Live Arts Collaboration) 사업을 통해 FCP와 공동으로 매우 생산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FCP가 **노인 친화적 문화 도시(Age-Friendly Culture Cities)**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에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시의 사례를 참조한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FCP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장국 및 문화 단체들과 협력하여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를 지역예술정책 및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한 분야에 포함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FCP는 선정된 5~7개 도시에 연속 3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신청 도시 중 각 도시별로 정한 광범위한 활동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4만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2만 유로를 추가 지급합니다. FCP는 참여 도시들 사이에 모범 사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06 Music Generations _ 뮤직 제너레이션스

뮤직 제너레이션스 (Music Generations)는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시가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2001년에 코니 흐루트(Conny Groot)가 세대간 문화간 교류와 연대라는 원칙을 가지고 설립한 단체입니다. 뮤직 제너레이션스에는 젊은 이민자들과 네덜란드 태생의 노인들이 모여 랩과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함께 하며, 설립 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모인 학생 음악가들과 2,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07 Care & Culture _ 케어 앤드 컬처

케어 앤드 컬처 (Care & Culture)는 2012년에 마르그리트 멜만(Margreet Melman)이 시작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케어 앤드 컬처는 전문 합창 지휘자 및 음악가들과 함께 케어 앤드 컬처 콰이어 (Care & Culture Choir)를 만들어 양로시설이나 주간 보호시설을 위한 맞춤형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초등학교생들의 학기 중 노인 돌봄 활동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참여하는 공연까지 다양한 세대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8 PRA Muziektheater _ PRA 뮈지크테아테어

PRA 뮈지크테아테어 (PRA Muziektheater)는 모니크 마셀링크(Monique Masselink) 예술감독이 운영하고 있으며, 두 개의 댄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75개 이상의 양로시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내 눈을 바라보라는 뜻의 룩 인투 마이 아이즈 (Look into My Eyes)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단순한 바람이라는 뜻의 심플 디자이어스 (Simple Desires)는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전문 댄서와 음악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니크 마셀링크는 양로시설의 노인들은 사람 간 접촉을 통한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는 이른바 ‘친밀한 관계가 부족한(skin hunger)’ 분들로 의료적 접근보다는 춤이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09 Foundation for Arts in Care _ 돌봄 예술 재단

돌봄 예술 재단(Stichting Kunst in de Zorg)은 2008년 예술가이자 문화사업가인 베라 부스 (Vera Boos)가 창단했습니다. 베라 부스는 가족의 양로시설 입소 경험이 동기가 되어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4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절반은 노인들에게 예술을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오감 자극을 주도록 고안한 조나스 키오스크(Zona's Kiosk)를 활용했습니다. 조나스 키오스크는 여행용 이동주택(travelling caravan)과 유사하며 최대 16명의 다양한 참여 예술 전문가들이 양로시설을 방문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몇 주 동안 방문하는 양로시설마다 독특한 예술작업 또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0 Museum for 1 Day _ 1일 미술관

1일 미술관(Museum for 1 Day)은 미술관의 수집 작품을 들고 양로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앙헬라 만데르스(Angela Manders)와 마를리스 유페르만스(Marlies Juffermans)가 설립했습니다. 1일 미술관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술관을 방문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작품 및 그에 대한 설명 기술을 배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입니다. 미술관은 관람자의 호기심과 감각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1인 미술관은 노인들에게 인지과 회상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SMAAK Foundation _ SMAAK 재단

SMAAK 재단(SMAAK Foundation)은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Amersfoort)시에 위치해 있으며 2015년에 설립되어 창의적 나이들에 관한 최고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노인들이 직접 전시기획을 하는 팝업 미술관(Pop-Up Meseums)이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1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고독에 맞서는 예술(art against loneliness)’을 주제로 기존에 방문했던 양로시설의 노인들에게 매주 추상화 엽서를 보냈습니다. 이 재단은 영국의 올드햄 갤러리(Gallery Oldham)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12 Van Gogh Museum _ 반 고흐 미술관

반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은 수년간 ‘예술이 사람을 만든다 - 노인 반 고흐를 만나다 (Kunst maakt de mens - ouduren ontmoeten Van Gogh)’라는 협력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삶과 예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전문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양로시설에서 워크숍을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현재 6개 지역의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2년간 이 프로젝트의 영향을 연구한 논문도 발간되었습니다.

13 Gekleurd Grijis _ 헤클뢰어트 흐리스

축제를 통해서도 다양한 예술 형태를 활용하여 창의적 나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드렌터(Drenthe)지방에서는 4월 한 달간 색깔 있는 회색이라는 뜻의 **헤클뢰어트 흐리스(Gekleurd Grijis)**라는 축제를 열고 있으며,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여 화랑, 미술관, 주민센터, 양로시설 등에서 여러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중에는 두 명의 레지던시 예술가들에게 노인들과 공동 작업을 하도록 의뢰하여 양로시설 노인들과 함께 선보인 무용 작품도 있었습니다.

14 Gruitpoort _ 그라위트포르트

예술센터는 창의적인 나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네덜란드 두틴헴(Doetinchem)시에 있는 **그라위트포르트(Gruitpoort)**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라위트포트 예술센터는 연극극장과 영화극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과 지역 주민 간의 결연 필요성을 강조하고 확대하는 기회로서 롱 리브 아츠(Long Live Art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양성과 지역 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간간으로 하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 30 여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앙로시설 노래교실과 안락의자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책 읽어주는 전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5 Wintertuin: Platform for the Elderly and their Stories

빈테르타원: 노인과 그들의 이야기 마당

노인과 그들의 이야기 마당(Platform for the Elderly and their Stories)은 네덜란드의 대표적 앙로시설 운영 기업 비탈리스(Vitalis)와 문학 출판사이자 문학 페스티벌 운영을 하고 있는 빈테르타원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비탈리스 전속 예술 코디네이터 마이케 뮐(Maike Mul)과 빈테르타원의 노르티어 케셀스(Nootje Kessels)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이야기 집이라는 뜻의 **더 하우스 오브 스토리즈 (The House of Stories)**는 1년간 앙로시설 거주 노인들 대상의 창의적 글쓰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향우울제 대신 글쓰기 (Prose instead of Prozac)’ 라는 소제목을 단 이 프로그램은 글을 쓰는 80대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일종의 재능 개발 사업입니다. 노인들은 출판 경험이 있는 젊은 작가 멘토와 함께 작업하면서 사진, 사물, 심지어 냄새까지 동원하여 기억을 자극하는 요소에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작업은 특별히 무대로 마련한 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삶을 재현하는 방을 만듭니다.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출판합니다. 노인들은 도움을 받아 발표를 하고 상업적 출판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작가 프로필 사진도 찍습니다. 참가자들은 글쓰기와 청중 앞에서 말하기 훈련을 받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는 **큰 글씨체 페스티벌**인 흐루트 레터 페스티벌 (Groot Letter Festival)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아직 이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축제의 형태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Eindhoven)시 앙로시설에서 열었던 두 가지 버전과 로테르담(Rotterdam)시에서 열린 2019년 버전이 있습니다. 유명 작가들이 하루동안 화려한 문학 축제와 동일한 축제를 네덜란드 전 앙로시설에서 펼치며, 음악과 각종 오락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이 축제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합니다. 축제에는 독서 외에도 하루 동안 결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상상해 보기, 전 직급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1회용 문학 어구 문신, 청진기와 하얀 가운을 입은 문학 약국의 문학 약사가 문학 병에 걸린 참가자에게 약 처방하기 등 기발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함께하는 질의 응답(Q and A with the Grey)**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께 다가가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 궁금한 것을 묻는데, 영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적이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Living Library)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집에 있다(Writer in the House)**는 말 그대로 작가들이 직접 양로시설에 (보통의 체험 프로그램처럼 실제로는 1주에 한 번씩 하는 워크숍이 아닌) 한 달간 머물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명의 작가 빌럼 클라센(Willem Claassen)과 마르티어 보르텔(Maartje Wortel)도 노인요양시설에 2-3 주간 머물렀습니다. 체험 기간 동안 마르티어 보르텔은 트라우(Trouw) 신문에 아래와 같이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오래 머물수록 노인들이 내 친구들과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큰 글씨체 페스티벌(Groot Letter). 사진 © 빈센트 판덴호헨(Vincent van den Hoogen)



독일

독일의 인구통계 변화는 북유럽 국가들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독일은 본(Bonn)시에 있는 주민들끼리 서로 돕는 공동 주거 형태로 아마릴리스(Amaryllis)나 세대간 사회 지원 센터인 멀티제너레이셔널 하우스(Multigenerational Houses)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나이돌에 관한 한 독일은 노인 대상 예술 교육과 전문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는 핀란드 등에서 시행되는 좀 더 일반적인 접근법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라인-베스트팔렌(Rhine-Westphalia) 북부지역에 있는 쿠비아(Kubia)입니다(18).

일반적으로 독일에는 전 세계에 전파해도 좋을 만큼 수준 높은 창의적 나이돌 관련 프로젝트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6 Altentheater _ 알텐테아터

알텐테아터(Althentheater)는 독일 쾰른(Cologne)시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창의적 나이돌 프로젝트를 시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텐테아터는 그보다 몇 년 앞서 세워진 프라이에스 베르크슈타트(Freies Werkstatt) 극장 부설로 1979년에 잉그리트 베르차우(Ingrid Berzau)와 디터 솔츠(Dieter Scholz)가 만든 극단입니다. 배우들의 나이는 60대 중반에서 90대 중반까지 다양하며 현재 생활, 개인적인 이야기, 노인이 되어가는 삶의 여정 등을 담은 공동 창작 공연을 합니다. 이 극단은 독일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4개 대륙에서 250여 명이 참가한 세계 최초의 노인 연극 페스티벌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17 Art for Care _ 아트 포 케어

아트 포 케어(Art for Care)는 시각 예술가 에벨린 두에르슐라크(Evelyn Duerschlag)가 독일 에센시(Essen)시에 설립한 단체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거주 노인들과 함께 세밀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명소에 노인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벽화를 그립니다. 그 중에는 1966년에 영국 밴드 비틀즈(The Beatles)가 공연했던 콘서트 홀 벽에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벽화에는 시설 노인들의 모습도 종종 등장하며, 에벨린 두에르슐라크 자신도 양로시설 직원 및 거주 노인들과 함께 공동 창작 작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8 Kubia _ 쿠비아

쿠비아(Kubia)는 창의적 나이들과 포용적 예술을 위한 역량 센터(Centre of Competence for Creative Ageing and Inclusive Arts)로서 독일 라인-베스트팔렌 북부지역 (North Rhine-Westphalia)에 위치하여 예술과 노인을 위한 독창적 시도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쿠비아는 문화노인학(Kulturgeragogik 또는 ‘cultural gerontology’) 과정의 훈련과 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 뮌스터(Münster)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 공동으로 문화노인학을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분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교육학(학습이론)은 언어학적, 실제적 측면에서 어린이 교육 위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삶, 경험, 능력, 관심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강한 믿음에서 이 학문의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쿠비아는 총 200여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연간 약 14회의 다양한 단기 워크숍 및 인터넷에 기반한 세미나(webina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노인들과 동영상을 이용해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노인 합창단을 구성하고, 스토리텔링 카페를 주최하거나, 치매환자와 유머 사용하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워크숍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강사들의 주도로 경험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비아는 뮌스터(Münster)시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 함께 1년 과정의 문화노인학(Kulturgeragogik) 전문가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회복지분야, 예술분야, (노인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는 문화계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과정 마지막에는 실습 프로젝트 및 수료 축하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학은 2018년부터 문화노인학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쿠비아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기관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 과제 수행 및 문제 해결에도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연극 단체의 경우 단원들이 대부분 여성인 데 비해 그들을 골고루 기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등장인물을 필요로 하는 대본이나 큰 규모의 공연에 사용할 현대 작품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희곡 작가 공모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쿠비아는 정보를 수집하고 좋은 사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행동의 날 (action days)’을 만들어 기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를 한 데 모아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드 극장이라는 의미의 테아터골드(Theatergold) 프로그램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역 노인 연극 축제 빌트베스트(WILDwest)를 개최하여 연극 제작, 워크숍, 세미나 등을 지원합니다. 노인과 전문가를 위한 관련 이벤트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잡지를 발간하여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rts for Care (아트 포 케어) 프로젝트. 사진 © 에벨린 두에르슐라크(Evelyn Duerschlag)



19 Lehmbruck Museum _ 렘브루크 미술관

렘브루크 미술관(Lehmbruck Museum)은 독일 뒤스부르크(Duisburg)시에 있으며 2006년에 독일 최초로 치매환자들을 위한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술감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미술관 관람 안내 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 워크숍을 열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독일 전역의 미술관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의 헤이 아틀러(Hey Atler!)로부터 파생한 노인 자원봉사자 및 예술 애호가(artgenossen)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현재 미술관 소속으로서 관람객을 위한 오디오가이드를 만들어 전시작품 설명하는 등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 Atelier D (Studio D) _ 아뜰리에 D

아뜰리에 D(Atelier D)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정기 예술 워크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예가 코리나 베른스하우스(Corinna Bernshaus)가 개발하고 운영하며, 제자 우샤 우르바인스키(Uscha Urbainski)와 예술학교라는 뜻의 쿤스슐레 베르크제첸(Kunstschule Werksetzen) 안에 있는 작업실에서 작품활동 및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보통 친인척이나 간병인과 함께 참가하며 특별한 주제 없이 여러 소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뜰리에 D는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있고,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21 Peeping Tom _ 피핑 톰

피핑 톰(Peeping Tom)은 해외에도 잘 알려진 벨기에 현대무용단입니다. 2000년 창단 이후 고령화 및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다수 공연했으며, 현실의 장소를 무대로 하여 환상과 결합한 내용을 극사실주의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부작 중 1편인 아버지라는 뜻의 베이더(Vader)를 양로시설에서 공연한 데 이어,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와 공동으로 노인 배우들의 시선으로 그려낸 제3막이라는 뜻의 써드 액트(Third Act)라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22 Fonton _ 폰톤

폰톤(Fonton)은 벨기에 브뤼주(Bruges)시 치매전문센터로서 브뤼주시를 세계 최고의 치매 친화적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폰톤은 치매환자를 환영한다는 뜻으로써 상점 유리창에 손수건 매듭을 걸어 놓도록 하고, 공공 및 민간기업에 치매 친화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브뤼주시에는 많은 문화유산센터와 더불어 치매환자들로 구성된 합창단 및 무용단이 있습니다.

23 Sering _ 세링

세링(Sering)은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시에 위치했으며 배우 미아 그레이프(Mia Grijp)가 창단한 사회적 참여 극단입니다. 대부분의 작품은 참여형으로 제작하며 여러 나라에서 상연합니다. 월드 캐러셀(World Carousel)은 이 극단의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첫사랑(Eerste Liefde - First Love - Primer Amor)이라는 작품에서 시작되었으며 벨기에 앤트워프시,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Bronx) 지역, 페루 빌라 엘살바도르(Villa El Salvador)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함께 참여했습니다. 노인들과 전문 배우들이 공동 창작한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무대 위 노인들의 첫 사랑을 함께 추억하게 됩니다.

24 Art For Dementia _ 아트 포 디멘시아

아트 포 디멘시아(Art For Dementia)는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바르바라 루엘(Barbara Luel)이 치매를 겪고 있던 자신의 할머니와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경험에서 창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 바르바라 루엘은 베르트 베르바에트(Bert Vervaeke)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던 미술 워크숍을 참고하여 자신의 고향인 루뱅(Leuven)시에서 미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25 Etnografiska Museet (Ethnographical Museum) _ 민속박물관

민속박물관(Etnografiska Museet)은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시에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갤러리와 미술관에 영향을 미친 미국 뉴욕의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MoMA)의 치매환자 대상 프로젝트 ‘MoMA에서 만나요(Meet Me at MoMA)’ 프로젝트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우편번호 복권(Swedish Postcode Lottery) 및 다수의 치매관련 자선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기억과 만남이라는 뜻의 ‘모테 미아 민넨(Moten med minne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이 휴관하는 월요일을 이용해 약 15명 규모의 치매환자 및 간병인을 대상으로 90분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기억을 자극하는 ‘연결고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 가이드가 있습니다.

26 Skånes Dansteater _ 스코네스 단스테아테에르

스코네스 단스테아테에르(Skånes Dansteater)는 스웨덴 말뫼(Malmö)시에 있는 무용단이며, 이 무용단의 무용수와 안무가들은 댄스 포 파킨슨스(Dance for Parkinson'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크 모리스 댄스 컴퍼니(Mark Morris Dance Company)가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핀란드는 유럽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이며 진보적인 사회 정책으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창의적인 나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렇듯 핀란드도 예산을 감축하고 있지만 복지 및 문화부문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중요한 특징은 오랫동안 보건과 사회복지 예산을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헬싱키(Helsinki)시는 약 10년째 예술 및 보건을 겸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모든 직종 종사자들에게 고등교육 수수료 및 전문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7 Armas _ 아르마스

창의적 나이들을 주제로 한 새로운 국가 행사인 **아르마스(Armas)**는 2018년에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핀란드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스코틀랜드 루미네이트 페스티벌(Luminate)에서 영감을 받아 라이사 카르투넨(Raisa Karttunen)이 제안한 페스티벌로서 약 2주간 진행된 이 행사는 250여 개의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밴드 비틀즈(The Beatles)의 음악과 결합한 맥주시음회, 현직 및 퇴직 미술관 직원들이 안내하는 국립미술관(National Art Gallery) 관람, 양로시설 노인들의 기획 하에 헬싱키시의 상징인 핀란드아홀(Finlandia Hall)에서 열린 사진전,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나 실란페 재단(Miina Sillanpää Foundation)의 노인 합창단 공연 등이 있습니다.

28 Aali _ 아알리

아르마스 페스티벌의 아르마스가 노인을 부르는 애칭이라면, **아알리(Aali)**는 그 자매격으로 영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인 달링(darling)과 유사한 뜻을 가진 국립 노인 복지 네트워크입니다. 아알리는 핀란드 전국 13개 마을과 도시를 국가 코디네이터와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29 Musiikkitalo _ 무시키탈로

무시키탈로(Musiikkitalo) 또는 헬싱키 뮤직 하우스(Helsinki Music House)는 최첨단 콘서트홀로서 약 30여 개의 핀란드 관현악단 중 두 개 관현악단이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홀은 헬싱키시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동반자(Cultural Companions)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노인을 모시고 오는 동반자 1인에게 무료로 티켓을 배부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리허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헬싱키 뮤직 하우스의 공연은 종종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제공하며 양로시설에도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현악단 단원들이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소규모 앙상블 연주를 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르마스 창의적 나이들 페스티벌(Armas Creative Ageing Festival) 개막행사, 핀란드, 2017년 10월.



30 Comprehensive Service Centres _ 종합 서비스 센터

종합 서비스 센터는 노인과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싱키(Helsinki)시 지역주민센터입니다. 지역 단위를 치매환자 돌봄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센터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우 현대적이고 고급 시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키나포리 센터(Kinapori Centre) 센터장은 예술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2012년 문화부장관 (Minister for Culture)의 참가 하에 재개관 했습니다. 직물, 도자기, 금속 공예 작업장이 있으며, 체력단련시설 및 수영장, 그리고 일 주일에 두 번 열리는 티 댄스(tea dance) 를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대형 극장과 강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내 식당과 도서관은 지역 단체와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로이후부리 센터(Roihuvuori Centre)는 입구에 도서관과 공공 식당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핀란드의 공공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폭격 피난소를 다감각실(multi-sensory room), 미술전시실, 스토리텔링 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이자 예술가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아름다운 총천연색 직물을 꼬아 만든 밧줄을 센터의 높은 창문에서 늘어뜨린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I’m still waiting)’라는 핀란드 전래동화 라푼젤에서 인용한 제목의 작품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주곡에 대해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한 클래식 기타 콘서트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31 CoreAct _ 코어엑트

코어엑트(CoreAct)는 2006년 연극 제작자인 아니카 바르칸(Anika Barkan)과 헬레네 크빈트(Helene Kvint)가 창단했습니다. 극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서 공연을 하며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수많은 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롤링 룸즈(Rolling Rooms) 프로젝트는 기억과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상호작용 연극과 무대 장치를 이용하며 약 14개의 양로시설에서 300여 명 이상의 노인들로부터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수집하여 각각의 이야기를 음악적 파노라마로 만든 음향 아티스트의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32 Old Town Museum (Den Gamle By) _ 옛마을박물관

옛마을박물관(Den Gamle By)은 덴마크 오르후스(Aarhus)시에 있으며 1950년대 풍의 덴마크 실내 장식으로 꾸민 '추억아파트(remembrance apartment)'를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은 부속시설인 아파트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치매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람에 사용합니다. 일본의 기타나고야시 **역사민속자료관(歴史民俗資料館 (Kitanagoya-shi Historical Museum, (68))**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

33 Trupe Sénior _ 트루페 세뇨르

선배라는 뜻의 **트루페 세뇨르(Trupe Sénior)**는 노인들의 공공활동 및 공연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상을 수상한 이 사업은 포르투갈 최고의 서커스 학교 샤피토(Chapitô)가 2016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본시의회(Lisbon's City Council)의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커스, 춤, 음악, 연극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를 표현하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트루페 세뇨르는 전국을 돌며 정기 공연을 합니다.

34 Companhia Maior _ 옛마을박물관

컴파니아 마요르(Companhia Maior)는 특기를 활용해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리기 위해 연기, 무용, 예술, 라디오 등 예술 및 미디어 관련 전문직 출신 은퇴 노인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컴파니아 마요르는 포르투갈 안무가 클라라 안데르마트(Clara Andermatt)가 영국 새들러스 웰스 극단의 컴퍼니 오브 엘더스(Company of Elders)와 함께 작업한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설립했습니다. 컴파니아 마요르는 벨렘 문화센터(Belem Cultural Centre)에 입주해 있으며 시의회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로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분야를 융합한 복합공연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젊은 유명 연출가 및 안무가와 협력하여 창작 또는 고전을 각색한 작품을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벨렘 문화센터 및 리스본 내 여러 공연장을 비롯, 포르투갈 전역과 해외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35 Demenz Kunst Gesellschaft (DAS Dementia Arts Society) DAS 치매예술협회

DAS 치매예술협회(Demenz Kunst Gesellschaft)는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시에 있는 응용예술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Arts)의 예술기반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 디자인, 건강관리, 도시학 전문가들을 모아 국내외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치매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치매환자를 위한 예술적 감각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36 Regional Social Policy Centre in Poznan 포즈난시 지역 사회 정책 센터

포즈난(Poznan)시 지역 사회 정책 센터(Regional Social Policy Centre in Poznan)는 지난 2012년 노인의 사회적 소외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삶은 열정이다(Life is Passion)’라는 가치를 걸고 특히 예술을 강조하며, 노인들의 예술적 열정을 표현하는 TV광고와 시 전역에 이미지 거리 광고를 했습니다.

37 Seniors Take Action _ 시니어스 테이크 액션

시니어스 테이크 액션(Seniors Take Action)은 창의적 사업 연합이라는 뜻의 어소시에이션 오브 크리에이티브 이니셔티브 (Association of Creative Initiatives)가 주도하며 여러 협력기관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활동, 노인 자원봉사활동 촉진, 고령화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영어사용권 국가



Young@Heart Chorus (영@하트 코러스), 미국, 사진 © 루시엔느 판데르 밀레(Lucienne van der Mijle)

미국

세계 여러 나라의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 코헨 박사(Dr. Gene Cohen)가 2001년에 발표한 논문 창의적 나이: 인생 후반의 인간 잠재능력 깨우기(The Creative Age: Awakening Human Potential in the Second Half of Life)는 노인의 건강에 참여예술이 갖는 효능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진 코헨 박사는 엘더스 셰어 디 아트스(Elders Share the Arts, 35페이지 참조)를 설립하고 창의적 나이들 운동을 주도한 수전 펄스타인(Susan Perlsterin)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 국립창의노년센터(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소개한 MoMA에서 만나요(Meet Me at MoMA)나 타임슬립스(Timeslips) 등 몇몇은 영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시도된 바 있습니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Met Life Insurance)은 한동안 특정 기금과 모범사례 시상을 지원하는 중요 재원이었습니다. 이후 아로하 자선재단(Aroha Philanthropies)이 세 개의 기금 중 하나인 바이탈리티 아트스(Vitality Arts)를 통해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2016년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주최로 창의성과 노인에 대한 국가 정상회담(National Summit on Creativity and Aging)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예술투자가 매우 저조하고 자선단체 의존도가 높았던 시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예술단체들은 자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자주 겪었습니다.

38 Timeslips _ 타임슬립스

타임슬립스(Timeslips)는 교수이자 예술가인 앤 바스팅(Anne Basting)이 1998년에 창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밀워키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창의적 활동을 통한 노년의 삶에 의미 갖기'를 목적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자극하기 위해 숙련된 강사가 양로시설 노인들에게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와 같은 감각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글로 남기는데, 재미있는 표현도 많지만 참가자들의 인생과 성향이 드러납니다. 타임슬립스의 특징은 참가자들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힘들어할 때 절대 관련 사실이나 경험을 떠올리도록 부담을 주지 않고, 그 대신 가지고 있는 만큼의 창의력에 의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39 Elders Share the Arts (ESTA) _ 엘더스 셰어 디 아트

Elders Share the Arts (엘더스 셰어 디 아트, 이하 ESTA)는 안타깝게도 2018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ESTA는 1979년에 수전 펄스타인(Susan Perlstein)이 독거노인 삶의 역사에 관한 워크숍을 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이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Bronx) 지역을 비롯한 뉴욕시 양로시설 전체로 확대 보급 되었습니다. ESTA는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로서 노인들이 체득한 문화와 역사를 전수하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노인들의 스토리텔링 그룹인 펄즈 오브 위즈덤 (Pearls of Wisdom)을 운영했으며, 연극에서 시작하여 이후 다른 형태의 예술과 교육으로도 발전했습니다.

40 Stagebridge _ 스테이지브리지

스테이지브리지(Stagebridge)는 ESTA보다 1년 앞선 1978년에 스튜어트 켄들(Stuart Kendall) 박사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 설립했으며, 다행히 아직도 건재합니다. 스테이지브리지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에 의한 연극단단을 표방하고 공연예술을 통해 노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600여 회의 워크숍 및 오락행사에 약 25,0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장노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연기지도 수업을 합니다. 스테이지브리지는 다양한 공동체 시설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시행하는 시니어스 리칭 아웃(Seniors Reaching Ou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1 IONA Services _ IONA서비스

IONA서비스(IONA Services)는 1975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한 양로시설 및 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현재 워싱턴 DC는 노인과 그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ONA 서비스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예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웰니스 앤드 아트 센터(Wellness and Arts Centre)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년 IONA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예술가 중 한 명에게 전시, 워크숍, 간담회 등을 열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 Quiltmakers of Gee's Bend _ 퀴트메이커스 오브 지스 벤드

노예제 폐지 직후 퀴트메이커스 오브 지스 벤드(Quiltmakers of Gee's Bend)는 미국 예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퀴팅을 하는 사람들은 앨라배마 강(Alabama River) 주변의 레호보스(Rehoboth)와 보이킨(Boykin) 지역의 문화였던 퀴트 제조기술을 배우고 아프리카 직물패턴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퀴트의 윗부분은 개인 작업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온전한 개인의 예술적 표현 작품입니다. 오늘날 퀴트는 대부분 지역의 유색인종 노인들이 제작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한 퀴트 제품은 판매하거나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43 Ruth's Table _ 루스의 테이블

루스의 테이블(Ruth's Table)은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에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85%는 이민자들입니다. 주로 시각예술, 공예, 율동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며 정기 전시회 개최 및 지역 학교 및 대학과 함께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44 Lifetime Arts _ 라이프타임 아트

라이프타임 아트(Lifetime Arts)는 인력, 자금, 전략을 연결해 창의적 나이들 관련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전국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자료 및 개별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새로운 인터넷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루스의 테이블(Ruth's Table), 미국



45 Dance for PD _ 댄스 포 PD

댄스 포 PD(Dance for PD)의 PD는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의 약자로,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Brooklyn)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마크 모리스 댄스 컴퍼니(Mark Morris Dance Company)의 데이비드 레벤탈(David Leventhal)이 2001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뉴욕시 여덟 개 장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 포 PD는 국제적 운동으로 성장했으며, 영국에서는 배링재단이 피플 댄싱(People Dancing)이라는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댄스 포 PD는 '전문교육을 받은 무용수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유용한 균형, 연속동작, 리듬, 미적 자각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진 움직임 전문가라는 기본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강사들은 현대무용, 발레, 탭댄스, 포크댄스, 사교댄스 등을 결합한 동작을 만들어 가르치고 참가자들의 정신과 육체를 반영한 안무를 구성하여 예술적인 모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 Young@Heart Chorus _ 영@하트 코러스

영@하트 코러스(Young@Heart Chorus)는 1982년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서부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사업단지 거주 주민들의 취미활동에서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원의 연령은 73세에서 93세이며, 30회가 넘는 해외 공연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 TV방송 채널인 채널 포(Channel 4)를 통해 처음 방영된 후,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고정 상영작이 된 조지 워커(George Walker)의 다큐멘터리 영화 출연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합창단의 큰 매력은 고전 록 음악을 노인이 부른다는 편견을 깨는 방식으로 부르는 그들의 열정입니다.

47 Music and Memory _ 뮤직 앤드 메모리

2006년 뉴욕시에서 시작한 **뮤직 앤드 메모리(Music and Memory)**는 미국 외 전 세계 수 천개의 양로시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환자들에게 mp3플레이어를 활용하여 나만의 선곡목록 만들기 등을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포 라이프(Playlist for Life)와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얼라이브 인사이드(Alive Inside)라는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48 Concerts in Motion _ 콘서트 인 모션

콘서트 인 모션 (Concerts in Motion)은 미국 뉴욕시 다섯 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체장애나 인지장애로 인해 콘서트장에 직접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뛰어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명이 넘는 음악가들이 참여하여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인들을 찾아가 연주하고 있으며, 이 자선활동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라이브 뮤직 나우(Live Music Now)와도 유사합니다.

49 Arts for the Aging (AFTA) _ 아츠 포 디 에이징

아츠 포 디 에이징(Arts for the Aging: AFTA)은 메릴랜드주 베테스다(Bethesda) 지역에 있으며, 1986년 예술가 롤로 사노프(Lolo Sarnoff)에게 의뢰한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공동 작업에서 시작하여, 2년 후 롤로 사노프 자신이 일흔 두 살의 나이에 세운 단체입니다. 이후 워싱턴 및 그 주변지역에서 많은 예술 강사들이 참여는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로 성장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양로시설, 공동체문화센터 등에서 열리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다루고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AFTA는 노년의 창의성에 대한 자료를 개발해서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Arts for the Aging(아츠 포 디 에이징), 미국



50 Museum of Modern Art (MoMA) and Meet Me MoMA에서 만나요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은 뉴욕시 맨해튼(Manhattan)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현대미술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미술관으로서 2006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Met Life Insurance)의 후원을 받아 치매환자와 간병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인 토론과 창의성 워크숍은 MoMA 뿐 아니라 양로시설, 주간보호서비스센터,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 수업자료와 동영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위에 그림을 그리도록 한 주제별 미술 프로그램은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MoMA는 이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여,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컨퍼런스와 워크숍을 열어 10,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서 널리 운영되었습니다.

캐나다

51 Society for the Arts in Dementia Care (SADC)

소사이어티 포 디 아츠 인 디멘시아 케어

소사이어티 포 디 아츠 인 디멘시아 케어 (Society for the Arts in Dementia Care)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 2005년에 설립되어 현장강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들의 창의적 능력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 표현, 소통과 치매(Creative Expression, Communication and Dementia)라는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 Smile Theatre _ 스마일 극단

스마일 극단(Smile Theatre)은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토론토(Toronto)시에서 1972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캐나다 프로극단 중 유일하게 노인요양시설, 병원, 케어홈 등 노인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언제나 음악이 포함되며, 공연 끝에는 배우가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마일 극단은 참가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워크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 Terrace Players _ 테라스 플레이어스

캐나다 토론토(Toronto)시에 있는 베이크레스트 센터(Baycrest Centre)는 양로시설, 주간보호서비스 센터, 특수 서비스 등 토론토 시 및 그 주변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테라스 플레이어스 (Terrace Players)는 베이크레스트 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임이며, 거주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돌봄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참가자 중에는 90대 및 100세 이상의 노인도 있습니다. 원래는 포럼극장(forum theatre)이라는 개념에서 착안해 자기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지만, 더욱 발전하여 같은 시설 내 거주자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관객으로 하는 연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54 Queensland Ballet (QB) _ 퀸즐랜드 발레

퀸즐랜드 발레(Queensland Ballet)는 1960년에 창단했으며 호주에 있는 단 세 개의 전문 발레단 중 하나입니다. QB는 노인을 위한 두 개의 과정을 개발했으며, 하나는 퀸즐랜드 기술대학교(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연구로 만든 일반 노인 대상의 발레 포 시니어스(Ballet for Seniors)이고, 다른 하나는 발레 포 파킨슨스(Ballet for Parkinson's)입니다. QB는 호주 발레단 중 처음으로 노인에게 특화한 두 개의 수업을 개발한 발레단입니다.

55 Belconnen Art Centre _ 벨코넨 아트센터

벨코넨 아트센터 (Belconnen Art Centre)는 호주 캔버라(Canberra)시에 있으며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국립 초상화 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호주 보건부(State Health authority), 호주 국립박물관(Museum of Australia) 등 여러 기관에서 협력하여 개발한 무용 수업 시리즈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디멘시아 인 디 아트 (Dementia in the Arts) 시리즈는 치매 또는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무용예술가 팀이 진행합니다.

56 Mature Artists Dance Experience (MADE)

머추어 아티스트스 댄스 익스피리언스

머추어 아티스트스 댄스 익스피리언스(Mature Artists Dance Experience: MADE)는 호주 태즈메이니아(Tasmania)주에 있으며 50세 이상의 장노년 예술가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무용을 창작합니다. 신작 프록(Frock) 개발에는 세계적 안무가 그레이엄 머피(Graeme Murphy)가 참여했으며, 2018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세계골드축제(World Gold Festival, 世界ゴールド祭2018)에서 공연했습니다. MADE는 노인 대상의 공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즈메이니아(Tasmania)주 최초의 댄스 위드 파킨슨스(Dance with Parkinson's) 프로젝트로 무버스 앤드 셰이커스 (Movers and Shakers)를 개발했습니다.

57 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_ 호주 현대미술관

호주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은 시드니(Sydney)시에 위치해 있으며 치매환자 및 간병인 대상의 아트풀(Artfu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뇌의 신경가소성에 예술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뇌정신연구소(Brain and Mind Centre)와 호주치매협회(Dementia Australia)가 3년(2016-2018)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 수반한 것이었습니다. 아트풀 프로그램은 토론과 예술작품 만들기로 구성된 두 시간 과정의 워크숍으로 6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워크숍이 있을 때까지 집에서도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트풀 앳 홈 (Artful at Home) 상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성취감 고취를 위해 아트풀 커뮤니티 데이 (Artful Community Day)를 열고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여 수료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Artful (아트풀): Art and Dementia (아트 앤드 디멘시아) 프로그램 참가자들,
호주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2018. 사진: 재키 매닝(Jacquie Manning)



58 Humour Foundation _ 유머 재단

호주의 유머 재단(Humour Foundation)은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중 엘더 클라운스(Elder Clowns)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광대들과 함께 웃고 즐기면서 노인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의 흘러간 젊은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머 재단은 시설을 방문하는 광대들에게 노인 공경을 강조합니다.

59 Milk Crate Theatre _ 밀크 크레이트 극장

밀크 크레이트 극장(Milk Crate Theatre)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 및 경력 후반에 접어든 예술가들을 위한 상시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워크숍은 연중 실시하며 전문 예술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 등과 함께 자유롭게 안전하게 모여서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0 Creative Aging Festival _ 창의적 나이들 페스티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에서 열리는 중북부해안지역 **창의적 나이들 페스티벌(Mid North Coast Creative Aging Festival)**은 공동체에서 노인들이 하는 가치 있는 역할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연례행사로서 노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영국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창의적 나이들 축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61 Australian Centre for Arts and Health _ 호주 아츠 앤드 헬스 센터

마거릿 마허(Margaret Meagher) 디렉터가 이끄는 **호주 아츠 앤드 헬스 센터(Australian Centre for Arts and Health)**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창의적 나이들에 대한 인식을 일깨운 전국적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센터는 나이, 인종, 연령,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호주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62 Kiwi Coffin Club _ 키위 코핀 클럽

예술을 표방하는 단체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키위 코핀 클럽 (Kiwi Coffin Club)**은 창의적 활동을 합니다. 회원들은 직접 자신의 관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역 병원에도 관을 만들어 보냅니다. 이제는 전국 네트워크가 된 이 클럽은 2007년에 뉴질랜드 로토루아(Rotorua)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로 일했던 케이트 윌리엄스(Katie Williams)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 클럽의 활동은 장례식 비용 절감과 더불어 노인들이 함께 모여 외로움을 달래고 죽음의 두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63 Hip Hoperation Crew _ 힙 호퍼레이션 크루

힙 호퍼레이션 크루 (Hip Hoperation Crew)는 빌리 조던(Billie Jordan)이 운영하는 댄스 그룹입니다. 이 크루는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찍어 유명해졌으며 국내외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4 Make Moments _ 메이크 모먼트즈

메이크 모먼트즈 (Make Moments)는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시에 있는 커넥트 더 닷츠 (Connect the Dots)라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술 교육자인 안드레아 가스킨(Andrea Gaskin)과 셀리나 앤더슨(Selina Anderson)이 2014년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예술작품 견학 및 정기 예술작품 제작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65 Northern Dance Network _ 노던 댄스 네트워크

노던 댄스 네트워크 (Northern Dance Network)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클랜드(Auckland)시 및 그 주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스파이어 (ASPIRE)라는 댄스 워크숍과 함께 프로젝트 단위로 시니어 댄스 컴퍼니(Senior DANCE Compan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iwi Coffin Club (키위 코핀 클럽),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66 Outreach Foundation _ 아웃리치 재단

아웃리치 재단(Outreach Foundation)은 연극을 포함한 참여적 예술 프로그램과 고용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재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지역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시 교외의 힐브로(Hillbrow)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츠웰로펠레 프레이일 케어 센터(Tswelopele Frail Care Centre)와 협력했으며 최근에는 요하네스버그 시각장애인 협회(Johannesburg Society of the Blind)를 방문했습니다. 대표적 활동으로 소속감, 가정문제, 사회적 신념체계, 세대간 갈등 등을 다룬 연극 작품 창작을 하고 있으며, 유색인종 차별정책이 있던 시대(apartheid era)를 경험한 노인 세대들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이타마 골드 시어터(Gold Theatre of Saitama), 일본. 사진 © 마이코 미야가와(Maiko Miyagawa)



일본

일본에 가면 여러 면에서 미래로 시간 여행을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목적상 현재 인구의 연령구조만 놓고 얘기하자면 현재 일본은 영국의 20-30년 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네 명 중 한 명이고, 영국은 여섯 명 중 한 명 수준입니다. 일본 치매인구는 세계 최다로 인구 약 1억2천만 명 중 4백6십만명에 달하고, 그에 비해 영국 치매인구는 85만 명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미래를 이미 1960년대부터 예견하고 대비했습니다(지난 10년간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결여되었던 영국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스템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양로시설 이용은 영국보다 적고 대부분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사이타마현 골드 극장(71)**은 창의적 나이들에 관한한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이며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7 Arts Alive _ 아츠 얼라이브

아츠 얼라이브(Arts Alive, 一般社団法人 アーツアライブ)는 시각 예술가이자 교수인 요코 하야시(Yoko Hayashi)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예술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작업은 영국 처럼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요코 하야시는 전통 일본 가옥을 활용한 한 양로시설에서 진행한 첫 프로젝트에서, 노인들의 어린 시절 또는 지역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전통 종이인 쇼지를 바른 미닫이문을 장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한 번에 6개월 동안 양로시설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양로시설 거주 노인과 간병인이 함께 미술관 관람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68 Kitanagoya-shi Historical Museum _ 기타나고야시 역사민속자료관

쇼와시대(1926-1989) 일상박물관(Shōwa era Lifestyle Museum)으로 불리기도 하는 **기타나고야시 역사민속자료관(Kitanagoya-shi Historical Museum, 歴史民俗資料館)**은 추억을 떠올리는 소품을 볼 때마다 탄성을 지르게 되어 조용히 관람하기 힘든 박물관입니다. 8주에 한 번씩 1주일간 열리는 추억학교(Reminiscence School, 回想法スクール)는 신청 대기자가 많습니다. 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해서 자신들이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들을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물관이 만든 다양한 주제의 추억상자(reminiscence kits, 回想法キット)는 항상 대여중입니다.



OiBokkeShi (오이보케시), 일본

69 Oi Bokke Shi (Ageing Dementia Death) _ 오이보케시

선도적 예술가 나오키 스가와라(Naoki Sugawara)가 만든 **오이보케시(OiBokkeShi)**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전문 요양보호사이기도 한 나오키 스가와라는 두 직업이 가진 연관성을 활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배우라서 더 좋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었고, 요양보호사라서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이보케시의 작품 중 2018 사이타마 세계골드축제에서 상연한 작품 밤길은 더 어두워지지 않는다(Night Never Grows Darker, 원제: みにちにひはくれない)는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사이타마시 거리에서 상연한 이 연극의 관객들은 길에서 부인을 찾아 헤메는 치매 노인을 만나게 되는 한 젊은이를 따라 걸으며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관람을 합니다.

70 Art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ARDA)

예술자원개발기구, 芸術資源開発機構

일본 도쿄(Tokyo)시에 있는 **예술자원개발기구 (Art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는 1999년(국제노인의 해)에 에미코 나미카와(Emiko Namikawa)가 설립했으며 양로시설에서 주요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각 예술 위주의 다양한 예술형태를 이용하여 100회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모든 수업은 간병인들에게 먼저 체험의 기회를 준 후에 시설의 노인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2세(Richard II), 사이타마 골드 시어터(Gold Theatre of Saitama). 사진 © 마이코 미야가와(Maiko Miyagawa)



71 The Gold Theatre of Saitama

사이타마 골드 극장, さいたまゴールド・シアター

사이타마 골드 극장(The Gold Theatre of Saitama)은 예술과 노인 사업에 관한 한 일본의 후지산 만큼이나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극장은 4개의 현대적인 대형 강당과 12개의 리허설홀 및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 쿠니 사이타마 예술 극장(Saitama Arts Theater, 彩の国さいたま芸術劇場) 예술 감독으로 취임 한 세계적 연출가 유키오 니나가와(Yukio Ninagawa)가 골드 극장을 설립하면서, 2006년은 노인 예술에 획기적인 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70세였던 유키오 니나가와 감독은 ‘새로운 형태의 극장을 만들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의 에너지를 이용해, 공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자고 생각했으며, 육체적 쇠락부터 정신적 문제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문 연기자와는 다른 독특한 연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슴에 와 닿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키오 니나가와 감독은 55세 이상의 배우 경력이 없는 1,2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을 직접 심사하여, 55세에서 80세 사이의 단원 총 4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후 신입 단원은 없습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하루 네 시간, 1주일에 5일씩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며, 아직 탈퇴한 단원은 없습니다.

창단 이듬해 골드 극장의 첫 공식 작품이 만들어졌고, 이후 지금까지 10여편 이상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안톤 체호프 같은 서양 고전 희곡작가들의 작품을 일본 작가들에게 특별히 의뢰하여 현대적인 일본 드라마로 각색하여 공연한 것도 있습니다.

골드 극장 단원들은 입단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5년 극단 방문 당시 (그 해 단원들의 평균나이) 76세였던 한 배우는 단원이 되기 위해 남편을 떠나 먼 곳까지 혼자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88세의 또 다른 배우는 연기를 하면서 중증 마비증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작품 까마귀여, 우리는 가끔 총알을 장전한다 (Ravens, We Shall Load Bullets (원제: 鴉 (からす) よ、おれたちは弾丸 (たま) をこめる)를 준비하면서 대사가 입에 붙지 않아 힘들었을 때, 열 여덟 살에 도쿄공습으로 불타버린 도시의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 대한 기억은 연극의 장면을 떠오르게 했고, 그러고 나니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유키오 니나가와 감독이 말했던 각자의 경험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점함을 과시하듯 연극 연습 고정 레퍼토리인 ‘약장수의 연설’을 읊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키오 니나가와 감독은 창작에 대한 열의가 여전한했던 2016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국제 연극계에 위대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키오 니나가와 감독의 뜻이 그대로 이어져 골드 아트 클럽(Gold Arts Club, ゴールド・アーツ・クラブ)은 현재 천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클럽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2018년 관람했던 클럽의 작품들은 매우 놀라웠으며, 그 중에는 몰리에르의 희곡 상상병환자(The Hypochondriac)를 각색하고 세이지 노조에(Seiji Nozoe)가 연출한 병은 마음에서 (Imaginary Invalid, 원제: 病は気から)라는 희극도 있었습니다. 사이타마 골드 극장은 첫 국제 노인 창의성 페스티벌이었던 2018 세계골드축제에서 그 작품을 상연하여 극찬을 받았습니다.

대만

72 National Museum of Fine Arts in Taichung

국립대만미술관, 國立臺灣美術館

대만은 노인 친화적인 미술관 네트워크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영국에도 이와 유사한 네트워크가 있으며, 배링재단이 지원하고 영국 대영박물관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조각공원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만미술관(National Museum of Fine Arts in Taichung)**도 이 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대만 타이중(Taichung)시에 있는 이 미술관은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여러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활동 및 치매 노인을 위한 순회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73 Social Affairs Bureau _ 대만 가오슝시정부 사회국, 高雄市政府社會局

가오슝(Kaohsiung)시는 대만 3대 도시 중 하나로서 인구는 영국 버밍엄(Birmingham)시와 비슷합니다. **가오슝시정부 사회국(Social Affairs Bureau)**은 232개의 주민센터, 227개의 조기교육센터, 59개의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활동에서 창의적 나이들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문화유산대사(heritage ambassadors)’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오슝시에는 문화유산대사로 활동하는 노인 200여 명이 있으며, 스토리텔링, 중국 경극 및 음악 만들기, 전통서예, 잉크페인팅, 그리고 더욱 일반적인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4 Catholic Foundation of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ementia (CFAD) _ 재단법인 가톨릭 치매 노인 사회복리기금회, 財團法人天主教失智老人社會福利基金會

재단법인 가톨릭 치매 노인 사회복리기금회(Catholic Foundation of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ementia: CFAD)는 사회복지재단으로서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CFAD는 노인요양시설 등 자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을 위한 참신한 방법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CFAD는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 그랜드라이더스(Go Grandriders, 不老騎士)에 참가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만 일주에 도전하고 있는 인메이 창(Yinmei Chang) 여사.
 사진: 혼다오 노인복지금회 제공.

75 Hondao Senior Citizens' Foundation

혼다오 노인복지기금회, 弘道老人福利基金會

혼다오 노인복지기금회(Hondao Senior Citizens' Welfare Foundation)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창의적 나이들과 노인의 권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도 장려하기(filial piety, 弘揚孝道)’, ‘공동체 돌보기(community care, 社區照顧)’, ‘꿈은 늙지 않는다(dreams never grow old, 不老夢想)’를 3대 사업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400명이 넘는 직원과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재미로 가득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13일 간 대만 일주를 하는 고 그랜드라이더스(Go Grandriders, 不老騎士)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꿈(Dreams, 夢想)’ 사업의 일부로서 늙지 않는다는 뜻의 ‘불로(不老)’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네버 올드 밴드(Never Old Band, 不老樂團)**에서는 일반 악기뿐 아니라 재활용품으로 만든 악기도 사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47개 밴드 1,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 **시니어 브로드웨이 (Senior on Broadway, 仙角百老匯)** 대회의 꽃은 영국 오투 아레나(O2 Arena) 정도의 대형 공연장에 열 개의 밴드가 벌이는 경합으로, 이 대회는 수 백만 명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영됩니다.
- **불로 러브(Bulao Love) 프로젝트**에서는 패션 사진작가에게 의뢰해서 웨딩 사진이 없는 노인들의 웨딩 사진을 찍어 전시 및 잡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로 야구 연맹(Bulao Baseball League, 不老棒球聯盟)이나 국방부와 함께 1일 병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불로 군인(Bulao Soldier) 프로젝트 등과 같이 예술과 무관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한국

한국의 90대 노인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3백만 명이 사망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게 했던 한국전쟁과 군사독재 및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 노인들은 강인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종종 세대 간 갈등이 빚어 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관광버스 복도에서는 무장해제하고 춤추기를 즐기는). 한국의 노인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면서 예술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창의적 분야들이 다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매우 질 높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76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은 2006년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 17개의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들을 위한 예술강사 파견으로 사업을 넓혔으며 코리아 갓 탤런트(Korea's Got Talent)와 유사한 행사로 청춘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77 Store N _ 이웃상회

이미화 미술작가는 한국 경기도 안양시 안양 8동에 **이웃상회(Store N)**를 만들어 지역 노인들과 함께 창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작업을 통해 한 시계장인 노인은 솜씨를 살려 어린이들을 위한 멋진 창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할머니들은 ‘나의 마무리 옷’이라는 수의 작품을 만들며 수를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로 돌아간 직업여성들의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제작했습니다.

78 IMAGO _ 이마고

이마고(IMAGO)는 한국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 세워진 공동체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한 때 어촌 마을이었지만 한국전쟁 때 38선 밑에서 북한 공산군에게 점령당하기를 반복했던 서울에서 피난 내려간 수 백만 명이 부산에 정착하면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닷가가 보이는 멋진 곳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이마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부산보다 다른 지역에서 내려온 피난민 출신이 많습니다. 시인이자 이야기꾼인 황정희씨는 이런 이야기를 예술로 담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형극, 예쁘게 디자인한 어린이 동화책,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드라마, 거대한 주사위를 굴리는 기발하고 특이한 모노폴리 게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유학공부, 시골여행, 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이마고와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마고, 한국. 사진 © 이마고



싱가포르

79 Silver Arts Festival _ 실버 아트즈 페스티벌

Silver Arts Festival (실버 아트즈 페스티벌)은 2012년 싱가포르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Singapore)이 만든 것으로 매년 9월 싱가포르 내 여러 장소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여러 형태의 예술을 즐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 공연과 영화가 주를 이룹니다. 가족 내 세대 간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말에 열리며, 노인 대상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예술 사용에 대한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 외에도, 창의적 나이들은 많은 싱가포르 공동체 예술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싱가포르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The Meltons (더 멜튼스)의 Silver Arts 2018 - Arts On the Move “Good Oldies!” (실버 아트즈 2018 - 아트 온 더 무브 “굿 올디스!”).
 사진 © 싱가포르 국립예술진흥원(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홍콩

80 Colours of Dementia _ 컬러스 오브 디멘시아

컬러스 오브 디멘시아(Colours of Dementia)는 공동체 내 치매환자 보호에 예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3년 12월에서 2014년 6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증에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59세에서 94세 사이의 노인 열 네 명을 대상으로 특별히 기획한 창의적 워크숍을 열어, 친척 또는 간병인도 참석자로 초청하여 치매 노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인 컬러스 오브 디멘시아는 이 노인들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홍콩 링난대학교 시각 연구학과(Department of Visual Studies at Lingnan University) 소피아 로 (Sophia Law) 교수가 이끌었으며 홍콩 알츠하이머병협회(Hong Kong Alzheimer's Disease Association (HKADA)) 및 홍콩예술학원(香港藝術學院)의 아트 포 올 (Art for All)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acushla Dance Workshop (마크슬라 댄스 워크숍), 비얼테인 페스티벌, 2017. 사진: 비얼테인 페스티벌 제공.



맺음말

고령화와 더 창의적인 세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진보는 급속히 길어지는 인간의 수명일 것입니다. 2017년 UN 세계 고령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1980년 3억8천2백만 명에서 2017년 9억6천2백만 명으로 증가
- 해당 인구는 2050년까지 21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
- 80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억3천7백만 명에서 2050년에는 4억2천5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
-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는 10세 이하 어린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세계 노인인구 3분의 2는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며, 이 지역 노인 인구는 (유럽, 북미, 호주 등지의)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세상은 늙어가고 있다 - 만세!”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초래할 미래는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Extra Time, 2018)이라는 커밀라 캐번디시(Camilla Cavendish)의 저서는 서양 선진국의 노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 후 20년 동안은 건강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 발전한 전 세계 과학 및 사회적 혁신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일을 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사회에서는 자주 간과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칼 오노레(Carl Honoré)도 도전: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Bolder: Making the most of our longer lives, 2018)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 예술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인간의 뇌에서 60대에 창의력이 분출한다고 하는 매력적인 연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 3의 나이(Third Age)와 제 4의 나이(Fourth Age) - 또는 ‘젊은 노인(Young Old)’과 ‘고령 노인(Old Old)’

‘노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3-40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을 한 단어로 말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65세에서 70세라도 45세 50세처럼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85세 이상을 일컫는 ‘고령 노인(Old Old)’에 대한 글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빈곤은 노년의 삶에 치명적이며 이른 나이부터 건강을 악화시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대안은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건강과 자신의 능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7-80대 또는 그 이상이 되어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왕성하게 ‘제3’의 나이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60대에도 신체적, 인지적 질병을 겪으면서 ‘제4’의 나이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술단체 및 기금의 참여를 독려해서 특별히 제4의 나이를 사는 노인들의 창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노인들은 주로 치매로 인한 외로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양로시설에 거주할 경우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줄지만 더 큰 잠재적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치매와 고독 -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가 도울 수 있는 주제

인구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는 치매인구 증가를 동반할 것이며 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간병인, 친구, 가족에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영국 치매의 실상은 니치 제라드(Nicci Gerrard)가 쓴 사랑에 대해 치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What Dementia Teaches Us about Love, 2018)에서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예술의 힘으로 치매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령재단이 영국에서 후원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를 입증하며 앞으로 세계 각국의 예술단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각 사회마다 가진 가족이나 공동체 활동을 둘러싼 전통과 사회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지고 있는 개인주의로 인해 더욱 보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는 특히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배령재단에서 2012년에 시행했던 고독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Campaign to End Loneliness)과 함께 발간했던 노년 고독 해소 - 예술의 역할(Tackling loneliness in older life - the role of the arts)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이번 여행을 통해 각국의 창의적 나이들 프로젝트를 둘러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수성이 있다고 한 것은 각 사회와 문화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효(孝)’의 전통은 서서히 변하고 있지만 서양인의 눈에는 여전히 다르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으며, 그 내용은 더 롱 히스토리 오브 올드 에이지(The Long History of Old Age, 2005, 팻 세인(Pat Thane) 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노인들이 공원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 것처럼 창의적 나이들이 전통예술 형태를 통해 문화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다고 한 것은 생존은 누구에게나 노화를 의미하며, 또한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 지난 수십년간 겪었던 인구 통계의 변화는 곧 모든 국가가 맞이할 운명이기도 합니다.

더 창의적인 세상이 될 수 있는 고령화 세상

세계의 고령화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더 오랜 시간을 기여했고 세상 경험을 더 오래 했습니다. 사회가 노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노인들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의적 나이들은 우리 미래에 더 중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커밀라 캐번디시(Camilla Cavendish)가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데는 개인적인 목표와 만족이 중요한 가치라고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령화 국가들은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고 노인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연관되도록 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전설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Pablo Cassals)는 91세의 나이에 왜 연습을 계속하시냐는 제자의 질문에 ‘연주실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언

- 유네스코(UNESCO)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관련해서 노인들의 삶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각국의 문화예술진흥 관련 부처는 '제4의 나이'를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각국의 보건복지 관련 부처는 노년에 갖는 문화와 창의성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예술을 후원하는 독립적인 재단들은 창의적 나이듦 활동에 기금 지원과 더불어, 동떨어져 있는 노인 단체와 문화예술 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 IFCCA -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 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은 회원기구를 통해 창의적 나이듦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 국제교류의 기회를 통해 창의적 나이듦의 의제를 포함한 고령화 및 치매 관련 컨퍼런스를 확대해야 한다.

주제별 견학 프로그램

시각예술

- Atelier D (아틀리에 D), 독일 (20)
- Art for Care (아트 포 케어), 독일 (17)
- DAS 치매예술협회 (Demenz Kunst Gesellschaft), 오스트리아 (35)
- Colours of Dementia (컬러스 오브 디멘시아), 홍콩 (80)
- Quiltmakers of Gee's Bend (퀼트메이커스 오브 지스 벤드), 미국 (42)

무용, 춤

- PRA Muziektheater (PRA 뮤지크테아테어), 네덜란드 (8)
- Skånes Dansteater (스코네스 دان스테아테에르), 스웨덴 (26)
- Dance for PD (댄스 포 PD), 미국 (45)
- Queensland Ballet (퀸즐랜드 발레), 호주 (54)
- Belconnen Art Centre (벨코넨 아트센터), 호주 (55)
- Mature Artists Dance Experience (머추어 아티스트스 댄스 익스피리언스), 호주 (56)
- Hip Hoperation Crew (힙 호퍼레이션 크루), 뉴질랜드 (63)
- OiBokkeShi (오이보케시), 일본 (69)

음악, 노래

- Music Generations (뮤직 제너레이션), 네덜란드 (6)
- Musiikkitalo (무시키타로), 핀란드 (29)
- Music and Memory (뮤직 앤드 메모리), 미국 (47)
- Concerts in Motion (콘서트 인 모션), 미국 (48)
- Young@Heart Chorus (영@하트 코러스), 미국 (46)

연극, 공연

- Altentheater (알텐테아터), 독일 (16)
- Sering (세링), 벨기에 (23)
- Peeping Tom (피핑 톰), 벨기에 (21)
- Trupe Sénior (트루페 세뇨르), 포르투갈 (33)
- Stagebridge (스테이지브리지), 미국 (40)
- Smile Theatre(스마일 극단), 캐나다 (52)
- Humour Foundation (유머 재단), 호주 (58)
- Milk Crate Theatre (밀크 크레이트 극장), 호주 (59)
- Gold Theatre of Saitama(사이타마 골드 극장), 일본 (71)
- Outreach Foundation (아웃리치 재단), 남아프리카공화국 (66)

페스티벌

- Age and Opportunity (에이지 앤드 오포튜니티), Bealtaine Festival (비얼테인 페스티벌), 아일랜드 (4)
- Gekleurd Grijis (헤클뢰르트 흐리스), 네덜란드 (13)
- Silver Arts Festival (실버 아트 페스티벌), 싱가포르 (79)
- Creative Aging Festival (창의적 나이듦 페스티벌), 호주 (60)

창의적 글쓰기, 문학

- Wintertuin (빈테르타원), 네덜란드 (15)
- Timeslips (타임슬립스), 미국 (38)
- Arts for the Aging (아트 포 디 에이징), 미국 (49)

크로스오버 예술

- Uillinn (일린), 아일랜드 (1)
- Waterford Healing Arts (워터포드 힐링 아트), 아일랜드 (2)
- Companhia Maior (컴파니아 마요르), 포르투갈 (34)
- Elders Share the Arts (엘더스 셰어 디 아트), 미국 (39)

- Ruth's Table (루스의 테이블), 미국 (43)
- Arts Alive (아츠 얼라이브), 일본 (67)
- Hondao Senior Citizens' Welfare Foundation (혼다오 노인복지기금회), 대만 (75)
- Social Affairs Bureau (대만 가오슝시정부 사회국), 대만 (73)
- Catholic Foundation of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ementia(재단법인 가톨릭 치매 노인 사회복지기금회), 대만 (74)
- 이마고 (IMAGO), 한국 (78)
- 이웃상회 (Store N), 한국 (77)

양로시설

- Care & Culture (케어 앤드 컬처), 네덜란드 (7)
- Art for Care (아트 포 케어), 독일 (17)
- Comprehensive Service Centres (종합 서비스 센터), 핀란드 (30)
- IONA Services (IONA서비스), 미국 (41)
- Terrace Players (테라스 플레이어스), 캐나다 (53)
- Art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예술자원개발기구), 일본 (70)

미술관

- Museum for 1 Day(1일 미술관), 네덜란드 (10)
- SMAAK Foundation(SMAAK 재단), 네덜란드 (11)
- Van Gogh Museum(반 고흐 미술관), 네덜란드 (12)
- Lehmbruck Museum(렘브루크 미술관), 독일 (19)
- Etnografiska Museet(민속박물관), 스웨덴 (25)
- Den Gamle By(옛마을박물관), 덴마크 (32)
- MoMA(미국 현대미술관), 미국 (50)
- Museum of Contemporary Art(호주 현대미술관), 호주 (57)
- Kitanagoya-shi Historical Museum(기타나고야시 역사민속자료관), 일본 (68)
- National Museum of Fine Arts(국립대만미술관), 대만 (72)

추천자료

창의적 나이들에 대한 자료

모든 자료는 배령재단 홈페이지(www.baringfoundation.org.uk)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Treasury of arts activities for older people
노인과 함께하는 예술활동 모음집
Liz Postlethwaite
리즈 포슬스웨이트
2019



Late opening: arts and older people in Scotland
늦은 시작: 스코틀랜드 예술과 노인
Andrew Eaton-Lewis
앤드루 이튼-루이스
2017



Towards the end: The Baring Foundation's Arts and Older People Programme 2010-2017
끝을 향하여: 배령재단 예술과 노인 프로그램
David Cutler
데이비드 커틀러



Growing the creative ageing movement: international lessons for the UK
창의적 나이들 운동 확산하기: 영국에 주는 국제적 교훈
Alice Thwaite
앨리스 트웨이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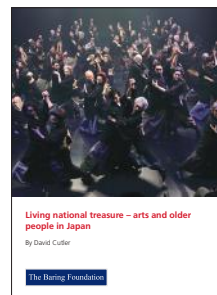
Dutch old masters - and mistresses: creative ageing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창의적 나이들 네덜란드편
David Cutler
데이비드 커틀러
2017



Creative ageing in Germany: the view from North Rhine-Westphalia
창의적 나이들 독일편: 라인-베스트팔렌 북부지역 사례
Harriet Lowe
해리엇 로
2017



A new form of theatre: older people's involvement in theatre and drama
새로운 형태의 연극: 노인의 연극과 드라마 참여
Kate Organ
케이트 오건
2016



Living national treasure - arts and older people in Japan
살아있는 국보: 창의적 나이들 일본편
David Cutler
데이비드 커틀러
2015

“ 포그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세계 일주 여행을 80일 만에 해냈다.
그러기 위해 여객선, 철도, 마차, 요트, 상선, 썰매,
코끼리 등 온갖 교통수단을 다 이용했다.”

쥘 베른, 80일간의 세계일주(1873)

The Baring Foundation
8-10 Moorgate
London EC2R 6DA
020 7767 1348
www.baringfoundation.org.uk
트위터: @baring_found

2019년 10월
ISBN: 978-1-906172-43-5

국문번역본 발간: 주한영국문화원